

# 여가시설 참여노인들의 여가경력 개발에 대한 연구

윤 소 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여가연구센터장)

## 1. 연구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를 경험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현재 노인들의 여가시간은 노동수명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예를들어 통상적으로 20세~60세까지 40년 동안 노동, 통근, 잔업시간을 더한 노동수명은 약 9만시간인 것과 비교해, 정년퇴직 후 평균 수명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1일 평균 12시간의 여가시간을 합하면, 1년에 약 4,500시간이 되며, 20년간 약 9만 시간의 여가시간이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사회는, 노인들의 이러한 여가권 보장을 위해 성공적 노후설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함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체제 및 노인 복지방안 등의 대안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여가는 일생의 과정을 통해 경험되는 사회화의 과정이다. 인격을 형성하는 유·청년기 동안 습득된 여가에 대한 좋은 태도들은 생애주기의 노년기 단계에서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여가사회화(leisure socialization)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같이 여가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여가는 개인의 발달측면에서 개인이 각 생애단계에서 그 다음단계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과정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성공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능력, 태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Ken Roberts(2006)<sup>1)</sup>는 아동기와 청년기에서의 여가사회화는 중요하며 이러한 초기 생애단계부터 가져온 여가기술과 관심은 노년기의 여가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초기 여가사회화가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을 예술과 스포츠 분야로 설명하였는데, 어렸을 때 정기적으로 클래식 연주회를 관람했거나 미술관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수준 높은 활동을 할 경향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반면 스포츠는 예술분야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어렸을 때 정기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도 이것이 평생의 스포츠 경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성인기 동안에도 스포츠 활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풍부한 스포츠 활동의 초기사회화가 필요하며 교육의 시기에서 노동시장, 결혼, 부모의 시기로 전환되는 동안 스포츠 활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초기 여가사회화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생애단계의 초기에 예술분야의 여가를 접하게 되면

---

1) Ken Roberts(2006)는 그의 저서 「Leisure in Contemporary Society」를 통해 개인의 전 생애과정에 걸쳐 여가행동이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하는 지를 설명하면서 성인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과 관심에 근거하여 새롭게 여가를 배워나가며, 이러한 관심은 어렸을 때 처음 배운 이후 정립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가생활을 넘어 삶의 전반적인 영역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Robson(2003)의 연구에서 잘 나타난다. Robson(2003)은 영국의 1970년 동시출생집단(cohort) 조사 자료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여가사용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측면에서 비슷한 청년들을 비교했다. 그 결과 도서관과 박물관을 방문하고 작곡이나 다른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16세 청년들은 계속해서 높은 교육 수준을 달성하고 이어서 높은 수입을 이루며, 또한 성인기 동안 시민 참여에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고한바 있다.

더욱이 개인의 여가는 단순히 여가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가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여가활동은 어느 정도 여가기술이 습득되게 되면 권태감과 무기력감을 가져오게 되고 쉽게 중단되기도 한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을 오랜 기간 지속하여 자신의 경력으로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가활동은 오랜 기간 여가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자신의 여가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교습하고 지도하게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sup>2)</sup>지속적인 여가경력이 형성되고 전문성이 획득되면 개인의 여가활동이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가치로 환원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의 여가 분야에서만큼은 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가경력을 구축하는 일은 개인의 여가활성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통합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DeCarlo(1974)는 전 생애동안 여가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단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성공적인 노화가 더욱 가능하다고 보고한바 있는데<sup>3)</sup>, 이처럼 여가와 삶의 질의 관련성을 지속적이고 긍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일련의 단계를 통한 여가경력의 개발이 요구될 수 있다. 여가경력이 개발되는 전형적인 단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각 유형의 여가경력들이 일련의 비슷한 단계를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으로 개개인에 따라 단계를 밟아가는 형태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Linda Heuser(2005)는 호주의 Perth볼링장의 노인여성 회원의 볼링경력이 전형적으로 5단계를 통해서 개발된다고 하였으며, Gray Crawford(2003)는 영국의 아이스하키 팀인 Manchester Storm의 서포터즈들이 넓게는 비슷한 단계를 통해 경력이 개발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지속이론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즉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여가활동이 시간과 기회만 제공된다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히 참여하고 경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시설에 참여하여 여가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의 활성화요인을 밝히고, 여가활동의 참여기관과 내용에 따라 여가경력의 단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여가경력 개발의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여가활동 활성화의 방법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2008),「여가 그리고 정책」, 대왕사 P.82

3) Seppo E. Iso-Ahola(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W. C. Brown pp.177~178 재인용함.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가활동을 활발히 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공적인 여가활동 활성화 사례 분석을 통해 여가경력의 단계구분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노인여가시설의 접촉을 통해 여가활동 관련 동호회 및 클럽활동 적극 참가자 1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노인에 대한 연령적 범위는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법<sup>4)</sup>에서 권고하는 평균 정년인 60세를 기준으로 규정한다.

심층면접조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국한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조사되었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전반적 생애경력 및 성공적 여가활동을 이루는 사례를 바탕으로 적극적 여가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 활동환경의 장단점을 분석 하였으며, 개선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사례조사를 위한 분석틀은 기존의 노인여가와 관련된 문헌연구와 예비면접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여 마련하였다. 자료분석은 추적질문(Probing)과 대조질문(Constant question)을 사용함으로써 사례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면담으로 얻어진 자료를 원자료로 사용하여 문장의 의미를 개념화, 비교하고 범주화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61세에서 78세까지의 범위를 나타내며, 수필가, 궁궐지킴이, 자격증취득,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활동 등 시설내 동호회나 클럽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하게 된 경력은 2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였다.

## 3. 조사결과

### 1) 노인의 여가생활 활성화 요인

노인들의 여가활동 선택은 시간적 여유, 생산적이고 보람된 활동의 욕구, 성격적 특성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시간적 여유는 정년퇴직, 자녀들의 출가, 가업을 물려준과 같은 개념어로 도출하였는데, 조사 참여자들은 주로 정년퇴직이나, 자녀들의 출가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늘어났으며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자 여가활동을 선택하게 되었다. 예를들어 조사 참여자의 '아'는 정년퇴직 후 아내와 함께 늘어난 시간을 활용하고자 여가활동을 선택하였으며, '다'와 '나'의 경우 자녀들의 출가 이후, 며느리에게 가업을 물려준 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여가활동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하는 또다른 이유로 생산적으로 보람된 활동이 있는데, 여가활동을 통해 얻은 행복의 요인이 삶의 보람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무료한 시간을 즐겁게 보낸다는 사실이 생산적이고 보람된다고 생각하게 하며, 봉사활동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 노인들의 세대는 과거 전쟁을 겪고 의식주 해결을 위해, 국가적 성장을 위해 일 중심적 생활을 유지해온 세대이다. 따라서 여가전무시대를 살아온 노인들이 정년퇴직이나 아이들의 출가 이후 늘어난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긍정성과 도전적인 성격 그리고 꾸준함 등의 성격적 특성도 여가활동을 선택함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활발한 여가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요인으로 가족 및 주변인의 지원과 환경적 지원을

4) 노동부 법률 제8472호 4장 제19조 정년 [2008년1월1일 시행]

뽑았으며, 이러한 요인은 뚜렷한 목적의식과 동기부여가 되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뚜렷한 목적의식은 각종 이벤트 및 대회활동과 멘토의 모습, 여가활동에 대한 사명이나 명예의식 고취 등의 개념어로 도출되었는데, 여기서 멘토와 관련된 언급은 여가문화 활동에 선구에 있는 노인의 여가 활동을 목격 한 후 그 멘토의 모습을 닮기 위한 목표를 설정 한 후 이루는데 중요한 요인을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변의 여가활동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가족 및 전문인의 지원은 노인들에게 낯선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노인들의 적극적 여가활동의 지속요인은 주변인의 긍정적 반응과 가족 및 전문인의 지원, 뚜렷한 목적의식이란 개념어로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활발한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노인들에게 여가활동은 기존의 노인이 가지고 있는 3중고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요인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여가활동의 활성화는 생활의 활력(성취감), 주변인과의 어울림 그리고 주관적 젊음의 욕구와 실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여가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요인 중 시설, 강사, 프로그램 및 비용의 문제는 노인들에게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참여자들이 현재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는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개인적 한계요인과 환경적 한계요인으로 나뉘어 도출해볼 수 있었다. 여가활동의 제약에 하위범주로 기구 및 시설의 부족과, 강사의 부족, 프로그램의 수요 및 난이도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예를들어 본 조사 참여자들은 시설은 대부분의 다른 항목보다 비교적 만족스러운 편이었으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의 기구 및 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꼈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노인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나,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공간, 봉사자들을 위한 공간의 부족에 대해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방해요인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는 노인의 수요에 비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강사가 부족한 점과, 여가활동의 종류 및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연령대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와 같은 신기술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는 연령대가 높으신 노인들이 쉽고 천천히 가르칠 수 있어 수요가 높은 반면, 요가나, 신체활동 위주의 강사는 젊은 강사를 원하였다. 조사 참여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여가프로그램을 경험하길 원하였으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체력의 한계를 느껴, 단독적인 시니어 클래스의 개설을 원하면서도, 오랫동안 활동하여 준전문가 수준이거나 여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교감을 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체적 기술적 여가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체력적 한계를 언급하며, 노인복지관 외의 문화센터나, 자치센터내의 단독적 시니어 반의 개설을 요구하였다. 난이도에 있어서는 여가경력이 오래된 노인들은 배움을 지속하고 싶지만 마땅히 배울만한 장소나, 시설이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여가활동 비용이 고가로 들어, 전문단계의 진입으로나 몰입에 제한을 가졌다. 또한 난이도에 있어서 고급난이도를 듣기 위한 평생교육원 및 전문 집단에서의 비용은 퇴직한 노인이 듣기엔 비용면에서 부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대안책으로 여가활동 종목을 바꾸거나, 다른 단체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등의 여가활동을 하였다. 또한 극복되지 못한 제약요인은 감수하며 현재의 여가활동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 2) 여가활동 참여기간과 내용에 근거한 경력 구분

연구 참여자들의 여가활동 참여기간과 내용에 따라 3가지 여가경력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집단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나 활동 방법에 있어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첫 번째 집단에 속하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주로 복지회관이나 자치센터, 문화센터 등에 참여하여 다수의 공연활동 경험이 있으며, 기존에 배웠던 여가활동을 집에서 활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여가활동프로그램을 깊이 있게 참여하기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두루 경험하며 자신의 여가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연활동 경험과 배운 여가활동을 집에서 활용하는 등의 특성을 보였다. 전체 10개 사례 중 2 사례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두 번째 집단에 속한 노인들은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참여를 거쳐 하나의 여가활동에 정착하여 몰입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참여자의 경우 총 4군데의 문화센터에 가입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난이도에 있어서도 좀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찾아보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하나의 여가활동을 통한 특수단체에 가입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즐겨하게 됨. 실제로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이의 51.7%가 5년 이상의 여가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10개 사례 중 4 사례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세 번째 집단에 속하는 노인들은 기존의 여가활동을 문화센터 및 동호회를 통해 배움을 가지고 몰입기를 거쳐 전문가 반열에 오른 경우로 구분된다. 여기서 전문가 반열은 각종 자격증 취득과, 대회출전, 전문집단에 투입이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가경력이 5년 이상 되며, 전문가수준에 올랐을 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지식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환원하고 싶어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전체 10개 사례 중 4 사례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 4. 노인의 여가경력개발을 위한 방안 제안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노인들의 여가경력 개발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성별, 참여이간 및 내용, 활동성격에 따라 행동특성 및 수요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노인 여가프로그램의 특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노인들의 여가경력은 3단계로 구분되어 그 활동의 난이도 또한 다양화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노인관련 여가활동은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는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난이도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여가프로그램을 수요에 맞게 난이도별로 구분하고, 여가활동 참여노인기의 여가프로그램을 특화된 방법(멘토제 실시)으로 구체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가활동 기술의 숙련도 및 여가활동 특성에 따라서는 독립된 실버반의 제공이 필요하나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함께 있어 다른 세대로부터 고립된 존재가 아닌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인식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 외에 다른 자치센터나 문화센터에서도 노인활동 영역에 맞는 실버반을 개설함으로써 다른 세대로부터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소외감을 받지 않음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시설과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가활동기술의 특성을 구분하여 실버반 이외에 여러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성화 요인 분석을 통해 강화요인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절실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이 초반에 여가활동을 몰입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는 시니어를 위한 공연이나 자격증 대회등과 같은 성취를 이루는 이벤트 활동을 시작하는데

있었다. 기존의 여가활동을 통한 공연과 대회 및 이벤트 활동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누구나 쉽게 공연정보를 찾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여가의 지속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여가활동영역에 따라 공연준비를 위한 활동비, 의상비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IT교육을 국가적으로 확대 시켜 노인들의 인터넷 활용을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체적 친목다짐은 물론 노인들의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 노인들의 적극적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여가정보의 부족이며, 또한 여가를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주 요인 중 하나가 여가활동의 멘토를 발견하였을 때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가활동을 활발히 하는 노인들의 역할모델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여가활동 사례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여가 수업은 활동별로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교사의 역량에 많은 비중을 의존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노인관련 정식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교사들에게 노인여가수업 진행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업방법과 자료 제시를 습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관련 여가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는 자격증 제도 및 연수제도를 제공하고,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노인들의 휴식공간의 확대, 여가활동 비용의 저렴화를 위한 현물적 지원, 자치센터 내 전문 인력 투입을 통해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내 평생 교육원 및 문화센터의 노인할인 정책실시를 통해 몰입기와 전성기집단에 있는 여가 배움의 욕구를 해소 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노인들의 효과적인 여가활성화를 위해, 여가자원 및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발하고, 관공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투입, 그리고 노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들의 적극적 여가활동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자녀들의 교육적 도움’임을 감안하였을 때 하나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을 해줄 수 있는 멘토 연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가활동 참여기간이 길거나 준전문가 수준에 이른 B집단과 C집단의 노인들은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노인이나 처음으로 여가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접해본 A집단의 노인들을 인도 하고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멘토-멘티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청·장년층의 전문가 집단이 B집단이나 C집단에 속한 노인들을 멘티로써 이끌어 주는 시스템은 노인들에게 교육의 난이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동시에 여가경력 전성기에 있는 노인 멘토들은 배운 여가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활용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생애 초기단계에서 가장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노인들이 여가봉사활동으로 통한 멘토역할을 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 [참고문헌]

- 김태주(2002). 지속이론에 대한 고찰. 대구산업정보대학 논문집, 16. 307-314.
- 문화체육관광부(2008). 국민여가진흥 증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 삼성경제 연구소(2002).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 윤소영(2010). 여가에 대한 생애주기 관점과 여가생활주기 단계별 모형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103-115.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여가 그리고 정책. 서울: 대왕사.
- Roberts, K.(2006). Leisure in Contemporary Society. UK: CABI.





## 여가시설 참여노인들의 여가경력 개발에 대한 연구

정 지 영(여주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장 큰 사회적 해결과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늘어난 노년기를 ‘인생 2막’으로 보다 값어치 있고 당당하게 보내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함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경력 개발에 대한 연구가 가지는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면서 부의 축적에만 노력하여 온 노인 세대가 늘어난 자신들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가치를 점차 자각하고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즉 성공적인 노화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여가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제안들이 보완된다면 노인들을 위한 여가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노인들의 여가활성화요인이나 지속요인, 제약요인 등에 대한 과거 선행연구결과와의 비교, 분석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즉 연구배경에서 노년기 여가활동의 중요성과 생애적 관점에서 초기부터의 여가경험이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부각되었으나, 심층면접을 통해 심도 있게 사례분석을 하여, 노인들의 성공적인 여가활동의 요인분석에 기존의 연구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다.

둘째, 10개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3개의 노인여가경력집단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들 집단 간의 만족도나 여가비용의 차이 등 여러 행태와 특성에 대한 비교분석이 부각되지 못하였다.

셋째, 제언이 있어서 3개의 여가경력집단이 존재하므로 나이도별로 여가수요를 구분하고 여가프로그램을 특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수요자가 집단별로 전체 몇 퍼센트인지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무조건 실버반이 별도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제언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의 내용은 여가경력의 개발 보다는 여가경력집단의 특성 분석을 통해 노인 대상 여가 프로그램 개발(기획)이나 사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제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연구 제목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다양한 활동계층의 노인여가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가정책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제언과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